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Time Use of Family Housework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이기영**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박사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연숙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조희금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이승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김주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수료 한영선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Ki-Young L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 Hyun-Ah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Oi-Sook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Yon-Suk Lee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Hee-Keum Cho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Seung-Mi Lee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h.D. Candidate Joo-Hee Kim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Ph.D. Candidate Young-Sun Han

* 본 연구는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 주저자: 이기영 (leek@snu.ac.kr)

*** 교신저자: 이현아 (leehyun88@korea.kr)

〈목 차〉	
I. 서론	IV. 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mily sharing time of housework and to examine the sharing time with family is influenced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Time Use Survey data collect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9 is used. Among the total sample of 21,000 individuals, 9,179 samples who are married, aged from 20 to 59 years old and non-farmers a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are frequency, percentage, crosstabulation,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major findings.

First, comparison of men and women shows women spend more time on housework than men do. But sharing housework time with family for men increase on Sunday. Performer average is almost same in men and women. Secondly, the family sharing time on housework is longer on Sunday. It is due to increase of men's family sharing time. It means that men's time substitute for women's housework. Thirdly, the influencing factors on family sharing housework are gender, age, education, presence of spouses, monthly income, dual earner status, weekly working hours, gender role attitude and presence of preschoolers. Family sharing housework is not only household labor but also family pleasure time. It means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making family time for workers fundamentally. And family policy needs to make a system of educational program for work-family balance.

Key Words : Family Sharing time (가족공유시간), Housework(가사노동),
Time Use Survey (생활시간조사), Time Use (시간사용)

I. 서 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특정행동을 특정인과 함께할 경우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24시간 사회'의 특성이 강화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며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 학습 등으로 가족

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활동의 시간량이나 시간대 뿐만 아니라 특정활동을 함께 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간연구의 대상을 개인의 활동시간 자체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집단으로서의 가족공동의 목표달성 및 욕구충족을 위해 어떻게 시간 자원을 배분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며, 이

를 통해 개인 단위의 생활시간 분배의 균형문제, 그리고 가족공유시간을 통한 가족생활의 질을 추론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나 활동의 수행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적정한 가족공유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애정을 교환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형성하게 하며, 가족공유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가족공유 시간에 대한 요구 및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 중 특히, 가사노동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활동으로서, 가족구성원이 가사노동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자녀 돌보기, 배우자 돌보기 등의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가족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제로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Fedick, Pacholok과 Gauthier(2005)은 부모시간(parental time)을 주행동으로 행해진 자녀돌봄시간 뿐만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행해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까지 포함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돌봄 외에도 식사, 가사노동, 쇼핑,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자녀돌봄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동시행동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족공유시간이 얼마나 광범위하

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자녀돌봄노동으로 인식하여 다른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분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단순한 노동분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공유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2009년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문항이 추가됨으로써 영역별 활동에 대해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가족공유 가사노동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공유시간의 개념과 의의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공유시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 정의를 하고 있다. 이승미(1997)는 가족공유시간을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원 두 사람이 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Barnet-Verzat, Pailhe와 Solaz(2005)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부가 같은 활동을 수행한 공통의 동일한 활동을 부부공유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손문금(2010)은 부부의 가족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부부 두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책임을 함께하면서 참여한 행동과 시간으로 집안 또는 집밖에서 수행된 모든 행동으

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서 보면 가족공유시간이란 ‘가족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같은 장소에서 활동을 함께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이상적인 가족관계란 상호작용하는 가족원 각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이 인정되면서 관계의 상호작용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정현숙·옥선화, 2008)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적정한 가족공유활동 및 시간을 통해 가족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애정을 교환하며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화되어야 하는 한편, 개별 활동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은 가족내에서 가족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공유시간과 독립적인 개인시간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연구의 대상을 개인의 활동시간 자체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집단이 가족공동의 목표달성 및 욕구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 자원을 배분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가족의 공유시간이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며 자녀교육과 사회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대한 선행연구

가사노동시간은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

화적 시간의 4영역 중 하나로서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투입하는 시간의 양이나 가족원간의 배분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개인의 가사노동시간 뿐 아니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가 성별 분업이나 양성 평등의 한 척도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으로 인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음식준비, 의류관리, 집청소 등의 가정관리에 속하는 세부활동은 개인이 행하는 가사노동활동으로 인식하여 노동분담적 차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돌보기, 부모조부모 보살피기 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도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여 노동 분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Bittman, 1999; ens Bonke & mes McIntosh, 2005; 김수정, 임은지, 2007; 김정석, 2005; 손문금, 2005; 은기수, 2009; 채로·이기영, 2004).

가사노동을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의 하나로 주목한 연구는 가정생활을 가족이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 인식한 연구(이승미, 1997)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승미(1997)는 가족공유는 시간 자원의 동시적 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공유의 방식은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공유를 공유 대상에 따라 부부공유시간, 모자 공유시간, 부자 공유시간, 부모 자녀 공유시간으로 분류하였는데, 가사노동 중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시장보기와 같은 가정관리 관련 활동은 함께 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가족공유로 간

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녀돌보기는 어떤 활동을 공유시간으로 포함시키는지, 그리고 공유시간으로서의 자녀돌보기 활동이 가사노동과 여가 중 어느 영역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유시간의 기준을 공유활동을 통해 쌍방 간에 얼마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규정할 경우(이승미, 1997), 자녀돌보기는 두명 이상의 가족원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한 돌봄노동이라는 서비스를 특정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배우자돌보기, 부모 및 조부모돌보기 등 가족보살피기도 중요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을 가족공유시간으로 인식한 연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배우자와 함께 한 가사활동의 시간량 및 부부간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가족보살피기시간도 시간량 및 부부간의 인식차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사노동을 배우자와 함께 한 시간으로 인식한 연구로는 가사노동 공유시간량에 대한 연구와 남편과 부인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활동에 대한 인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ryant & Wang, 1990; Paul & Steven, L. N., 1987; Liana Sayer, 2010; 손문금, 2010; 이승미·이기영, 1998). Bryant와 Wang (1990)은 배우자와의 공유시간을 분석한 결과 거의 반(48.3%)에 가까운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유했고 공유한 사람들의 평균시간은 1시간 08분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경우 45.8%가 남편과의 가사노동시간을 공유했으며 그 시간은 1시간 11분이었다. Sayer(2010)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간 미국의 기혼여성의 21%가 배우자와, 또 25%가 배우자 및 자녀와 가정관

리를 공유했고 공유한 사람의 평균 가정관리시간은 12분과 18분이었으며 기혼남성은 배우자와는 15%가, 배우자 및 자녀와는 14%가 공유했으며 평균시간은 각각 15분과 16분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손문금(2010)에 따르면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적은 활동은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시간, 미디어이용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가족공유시간이 여가활동과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을 분석한 Paul과 Steven(1987)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TV를 보는 여가활동시간 동안 옷을 개키는 가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가족공유시간을 보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부부간에 다르게 인지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들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Paul & Steven, 1987)에서는 부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그 행위를 부부가 TV를 함께 보는 시간으로 인지하는데 반해 부인은 TV를 보면서 옷을 개키면 동일한 그 행위를 가사노동 공유시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공유시간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승미·이기영(1998)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가족응집성과 남편의 가족응집성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돌보기가 어머니에게는 의무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아버지에게는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줄 수 있는 반여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직장관련역할에 몰두한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공유시간을 소홀히 하며 그중 특히 자녀돌보기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손문금(2010)의 결과에서도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쇼핑 등 가

정관리 행동의 부부공유시간은 남편들이 응답한 공유시간보다 부인들이 인식하는 공유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보살피기 시간을 개인의 가사활동 또는 돌봄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하는 가족공유시간으로 본 연구들도 있다(Bryant & Zick, 1996; Chalasani, 2007; Davey & Paolucci, 1980; Fedick 등, 2005; Gatenby,R., 2004; Sayer, 2010).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량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Davey와 Paolucci(1980)는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을 통해 가족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가족상호작용은 사회적 활동, 식사, 가족 간 보살피기 활동에서 주로 일어나며, 가족원간 신체적 보살피기나 자녀 공부 도와주기, 책 읽어주기와 같은 가족보살피기는 13%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공유활동은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부부의 부부 공유시간을 연구한 Gatenby, R.(2004)에 따르면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시간(쇼핑시간 제외)을 주중에는 18분, 주말에는 38분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yer(2010)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미국시간자료를 통합해서 수행한 시간연구에서 자녀돌보기를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로 나누었는데, 기혼여성의 2%가 배우자와 함께, 69%가 자녀와 함께, 18%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자녀돌보기를 했고 평균시간은 각각 2분, 1시간 32분, 23분이었다. 기혼남성은 2%가 배우자와 함께, 39%가 자녀와 함께, 26%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자녀돌보기를 공유했으며 각각의 평균시간은 2분, 48분, 33분으로 나타났다.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시간이 여가와 혼합되어 나타난 연구도 있다. 부모와 어린 청소년이 있는 유럽-미국계의 55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여가 경험을 연구한 Larson, Gillman

과 Richards(1997)에 따르면, 가족여가 활동 시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보호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여가가 자주 혼합되어 나타났다.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시간의 부부간의 시간량 및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를 보살피는 시간을 부부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다.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실태와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Barnet-Verza, Pailhé & Solaz, 2005; Bittman, 1999; Bradbury, 2004; Bryant & Cathleen, 1996; Bryant & Zick, 1996; Yeung, Sandberg, Davis-Kean & Hofferth, 2001).

자녀보살피기 가족공유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 부모의 교육수준을 제시하고 부부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Bryant와 Zick(1996)은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유시간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자녀 공유 가사노동시간은 증대하였으며, 자녀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공유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는 식사준비와 가족돌보기 활동을 주로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는 집, 자동차, 정원 관리 등을 주로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공유시간의 양과 활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공유시간 차이를 연구한 Chalasani(2007)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지만 그 차이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서 더 적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됨에 따라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가족간의 상호작용 및 유대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부부간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가족공유 가사활동에 관한 부부간의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등 가사노동을 가족공유로 보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집단간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제한하였고 농가 및 단독가구는 제외하였다. 연령을 20~59세의 성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함께 한 사람”的 분류항목이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 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

척, ⑤ 기타로 나뉘어져 있어 미성년자녀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와의 공유시간을 파악할 수 없고, 노인의 경우 60대 미만의 성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가족구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혼자로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한 이유는 미혼자의 경우 20~59세 연령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기혼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주의를 받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사회의 산업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가족은 제외하였으며, 가족공유가 가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고, 요일별 비교를 위하여 평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조사 분석은 요일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거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일별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공유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 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 ⑤ 기타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가족공유’ 즉 ‘가족 관계에 있는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② 배우자, ③ 미취학 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이 함께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함께 한 사람이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가족공유시간은 ② 배우자, ③ 미취학 자녀, ④ 기타 가족·친척을 합한 값이 아니고 총활동시간에서 ① 혼자 하는 시간 및 ⑤ 기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한 값이 된다. 여기에서 친척이 가족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인의 가족과 친척의 구분은 개인차가

〈표 1〉 본 연구의 분석자료 대상자의 특성

단위:인도(%)

변수	구분	전체(9,179)	남(4,267)	여(4,912)
연령	20-29세	460(5.0)	145(3.4)	315(6.4)
	30-39세	2,779(30.3)	1,195(28.0)	1,584(32.2)
	40-49세	3,651(39.9)	1,787(41.9)	1,871(38.1)
	50-59세	2,282(24.9)	1,140(26.7)	1,141(23.2)
	평균(표준편차)	43.2세(8.3)	44.0세(8.0)	42.5(8.5세)
교육수준	중졸	1,496(16.3)	529(12.4)	967(19.7)
	고졸	4,453(46.6)	1,933(45.3)	2,520(51.3)
	대졸	2,927(33.8)	1,589(37.2)	1,338(27.2)
	대학원	303(3.3)	432(5.1)	87(1.8)
경제활동여부	함	6,757(73.6)	408(93.9)	2,749(56.0)
	하지 않음	2,422(26.4)	259(6.1)	2,163(44.0)
직업	관리자·전문가	1,445(15.7)	959(22.5)	486(9.9)
	사무직	1,113(12.1)	694(16.3)	419(8.5)
	서비스·판매직	1,732(18.9)	646(15.1)	1,086(22.1)
	농림기능원·장차·단순노무직	2,459(26.8)	1,702(39.9)	757(15.4)
	해당사항없음	2,430(26.5)	266(6.2)	2,164(44.1)
노동시간	없음	2,420(26.4)	257(6.0)	2,163(44.0)
	하	2,153(23.5)	978(22.9)	1,175(23.9)
	중	2,570(28.0)	1,644(38.5)	926(18.9)
	상	2,036(22.2)	1,388(32.5)	648(13.2)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310(25.2)	80(1.9)	2,230(45.4)
	100만원 미만	1,549(16.9)	345(8.1)	1,204(24.5)
	100~200만원 미만	2,315(25.2)	1,298(30.4)	1,017(20.7)
	200~300만원 미만	1,593(17.4)	1,316(30.8)	277(5.6)
	300만원 이상	1,412(15.4)	1,228(28.8)	184(3.7)
주휴제도	주1일	2,087(22.7)	1,249(29.3)	838(17.1)
	토요 격주, 주 2일	2,737(29.8)	1,656(38.8)	1,081(22.0)
	기타	1,935(21.1)	1,105(25.9)	830(16.9)
	해당사항없음	2,420(26.4)	257(6.0)	2,163(44.0)
배우자유무	있음	8,745(95.3)	4,130(96.8)	4,615(94.0)
	없음(사별, 이혼)	434(4.7)	137(3.2)	297(6.0)
성역할 태도	전통적	3,864(42.1)	2,153(50.5)	1,711(34.80)
	근대적	5,315(57.9)	2,114(49.5)	3,201(65.2)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234(24.3)	1,105(25.9)	1,129(23.0)
	없음	6,945(75.7)	3,162(74.1)	3,783(77.0)
맞벌이여부	맞벌이	4,407(48.0)	2,123(49.8)	2,284(46.5)
	비맞벌이	4,772(52.0)	2,144(50.2)	2,628(53.5)

많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함께 하는 시간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④ 기타 가족·친척 항목을 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통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께 한 사람과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에서는 ‘함께 한 사람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주행동 자체를 아는 누구와 함께하였는지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동일 행동이라도 행동이 주고 받는 관계일 경우(서비스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함께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주기’의 경우 함께 한 사람은 「혼자」라고 본다. 따라서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통계청의 기준에서 보면 보살핌 행동을 혼자 한 경우에도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있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살피기 행동에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보살피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보고 자료를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살피기를 혼자 한 경우는 없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9,179명으로 그 중 남자가 4,267명, 여성이 4,912명이다.

2) 분석방법

우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ASW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계산하였고, 이때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성인기혼자의 가족공유시간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변수에 따른 가족공유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기 위해 우선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를 살펴보고,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집단간 특성과 가족공유가사노동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1.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의 실태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실태는 함께한 사람별 가사노동시간 및 비율, 세부활동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함께 한 사람별 가사노동시간 및 비율

우선 가사노동 중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을 알기위해 가사노동을 함께 한 사람에 따라 ‘혼자’, ‘가족과 함께’, ‘기타’로 나누어 각각의 가사노동시간과 비율을 성별, 요일별로 분석해 보았다. <표 2>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31분이며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 31분, 여성 4시간 23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배 이상 길다. 그 중 가정관리시간은 전체 1시간 47분, 남성 19분, 여성 3시간 8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배 이상 길다. 가족보살피기는 전체 평균 45분으로 남성은 12분, 여성은 1시간 15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배 가량 길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가정관리시간의 남녀간 격차가 가족보살피기에서의 남녀간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관리시간이 가족돌보기시간보다 더 큰 차

이를 보이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전체 67.1%가 가사노동을 혼자 하였고, 31.8%가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간양으로 볼때는 혼자하는 가사노동이 1시간 38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51분으로 나타났다. 남녀차이를 보면 남성은 혼자 하는 경우가 15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16분으로 거의 비슷한 반면, 여성은 혼자하는 경우가 2시간 56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1시간 23분으로 혼자하는 시간이 2배 이상 길었다. 이러한 경향을 비율을 통해서도 드러나 남성의 경우 혼자한 경우와 가족과 함께 한 경우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혼자한 비율이 73.5%로 가족과 함께한 경우의 25.1%와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가사노동을 할때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반해 여성은 혼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가족공유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가정관리는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38분으로 전체 가정관리시간의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7분 8.7%에 불과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를 혼자

하는 경우가 15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4분으로 각각 80.7%와 18.9% 인데, 여성은 혼자가 2시간 56분, 가족과 함께가 9분으로 그 비율은 각각 93.7%, 5%이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관리시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여성은 혼자서 가정관리를 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다.

가족보살피기는 그 속성상 혼자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대부분(99.3%)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12분, 여성은 1시간 14분으로 시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이상 길지만 그 비율은 남녀가 각각 99.8%, 99.1%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미국시간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가족공유시간 연구(Sayer, 2010)에 의하면 남성이 혼자 가정관리를 하는 시간이 17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23분, 여성이 혼자 가정관리를 하는 시간은 1시간 14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1시간 9분으로 나타나, 혼자 하는 가정관리시간에 있어서 남성은 양국이 유사하나 여성은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 월등히 길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관리시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미국의 경우가 훨씬 길었다. 한편 미국에서

〈표 2〉 가사노동 시간량 및 비율(평일)

(단위:시간:분,%)

	전체 시간량(비율)			혼자 시간량(비율)			가족 시간량(비율)			기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2:31 (100)	0:31 (100)	4:23 (100)	1:38 (67.1)	0:15 (53.0)	2:56 (73.5)	0:51 (31.8)	0:16 (46.4)	1:23 (25.1)	0:02 (1.1)	0:00 (0.6)	0:04 (1.4)
가정관리	1:47 (100)	0:19 (100)	3:08 (100)	1:38 (90.2)	0:15 (80.7)	2:56 (93.7)	0:07 (8.7)	0:04 (18.9)	0:09 (5.0)	0:02 (1.2)	0:00 (0.7)	0:03 (1.4)
가족보살피기	0:45 (100)	0:12 (100)	1:15 (100)	0:00 (0.0)	0:00 (0.0)	0:00 (0.0)	0:44 (99.3)	0:12 (99.8)	1:14 (99.1)	0:01 (0.7)	0:00 (0.2)	0:01 (0.9)

는 가족보살피기 대신 자녀보살피기 시간을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자녀보살피기는 46분, 여성의 자녀보살피기는 1시간 31분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미국의 경우가 길었으며 특히 남성에 있어서 양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2시간 57분으로 평일보다 26분 길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1시간 18분으로 평일보다 2배 이상 긴 반면 여성은 4시간 30분으로 평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보면 일요일 가정관리는 2시간 14분인데 가족보살피기는 42분으로 가정관리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29분 증가한 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3분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요일 간 차이를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가 49분, 가족보살피기는 29분으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각각 30분, 17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가정관리시간은 일요일에 3시간 35분으로 평일보다 27분 증가하였으나, 가족보살피기는 55분으로 평일에 비해 20분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일요일의 가사

노동시간을 보면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는 평균 1시간 47분으로 평일보다 9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1시간 8분으로 평일보다 17분 길어 혼자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커졌다. 비율을 통해서도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일요일에 혼자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60.0%로 평일보다 낮은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39.1%로 평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혼자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27분으로 평일보다 12분 길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50분으로 평일보다 34분이 길어졌다. 이는 일요일 남성이 가족과 공유하는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은 혼자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2분으로 평일보다 6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평일보다 3분 증가해서 일요일과 평일의 시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는 남성의 가사노동 증가가 크며, 특히 그 중에서도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일요일의 가사노동 참여비율에 있어서도 남성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56.1%로 평일보다 9.6%, 여

〈표 3〉 가사노동 시간량 및 비율(일요일)

(단위:시간:분,%)

	전체 (시간양(비율))			혼자			가족			기타		
	전체	남	여	시간량(비율)			시간량(비율)			시간량(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2:57 (100)	1:18 (100)	4:30 (100)	1:47 (60.0)	0:27 (42.9)	3:02 (71.8)	1:08 (39.1)	0:50 (56.1)	1:26 (27.3)	0:02 (0.9)	0:01 (1.0)	0:02 (0.9)
가정관리	2:14 (100)	0:49 (100)	3:35 (100)	1:47 (75.3)	0:27 (59.6)	3:02 (85.0)	0:27 (23.9)	0:22 (39.6)	0:31 (14.1)	0:01 (0.9)	0:00 (0.9)	0:02 (0.8)
가족보살피기	0:42 (100)	0:29 (100)	0:55 (100)	0:00 (0.0)	0:00 (0.0)	0:00 (0.0)	0:42 (99.2)	0:28 (99.3)	0:54 (99.1)	0:01 (0.8)	0:01 (0.7)	0:01 (0.9)

성은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27.3%로 평일보다 2.2% 증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일요일의 가정관리시간을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1시간 47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27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9분, 20분 증가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가 더 컸는데, 비율로 보면 가정관리는 혼자가 75.3%로 일요일보다 14.9% 감소한 반면 가족과 함께는 23.9%로 15% 증가함으로써 요일간의 차이를 더 분명히 보여주었다. 성별에 따른 가정관리시간의 차이를 보면 일요일에 남성이 혼자 하는 경우가 27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22분으로 각각 12분, 18분 증가하였고 여성은 혼자 하는 경우는 3시간 2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31분으로 평일보다 각각 6분, 2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정관리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공유 가정관리 시간 비율의 요일간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요일에 39.6%, 여성의 경우 14.1%로 평일보다 각각 20.7%, 9.1%가 늘어 일요일에 증가된 가족공유 가정관리시간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가족보살피기시간을 보면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8분으로 평일보다 16분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54분으로 2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은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평일 여성의 가사노동은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보다 시간이나 비율 면에서 2배 이상 많

았다. 반면 남성은 절대적인 시간면에 있어서 가사노동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수행양식에 있어서도 혼자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의 역할을 적게 할 뿐 아니라, 가사노동을 할 경우에도 혼자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비율이 혼자하는 가사노동비율보다 낮은 것은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영역에서 혼자 하는 비율이 높은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정관리시간 중 가족공유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할 때,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다소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이 증가한 것,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비율에 있어서도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비율이 평일보다 높아졌으며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했다. 특히 일요일에 남성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증가한 것은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영역에서 가족과 함께 한 시간과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일요일 남성의 경우 평일에 부족했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특히 가정관리시간을 크게 늘리는 식으로 시간배분을 조정했음을 알 수 있다.

2) 세부활동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요일에 따라 세부활동별,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보면 가정관리를 가족과 공

유하는 시간이 7분인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44분으로 나타나 가족과의 공유시간의 대부분이 가족보살피기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별로 보면, 가정관리 중에는 음식준비와 정리,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이 각각 3분씩 가족공유로 이루어졌다. 가족보살피기 중에는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26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초중고생보살피기가 13분으로 많았다. 성별로 비교해볼 때,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미취학자녀보살피기와 초중등학생보살피기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을 세부활동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가정관리는 27분으로 평일보다 20분 증가했는데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22분, 여성은 31분으로 평일에 비해 각각 18분과 22분이 증가했다. 증가량으로 보면 여

성이 다소 많으나 증가율로 보면 남성의 증가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에 있어서 가족공유시간이 평균 13분으로 길고, 평일에 비해 증가량도 커다. 한편 일요일의 평균 가족공유 가족보살피기는 42분으로 평일과 유사한 수준인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남성은 28분으로 평일보다 16분이 증가한 테 반해 여성은 54분으로 20분이 줄어들었다. 즉, 평일에 비해 일요일 가족공유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남성은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보다 일요일이 길며, 남성보다 여성이 길고, 가사노동시간 중 가정관리보다는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 가족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해볼 때, 일요일에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시간이 늘어난

〈표 4〉 세부활동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평일과 일요일)

(단위:시간:분)

	평일			일요일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0:51	0:16	1:23	1:08	0:50	1:26
가정관리	0:07	0:04	0:09	0:27	0:22	0:31
음식준비및정리	0:03	0:01	0:04	0:07	0:04	0:10
의류관리	0:00	0:00	0:00	0:01	0:00	0:01
청소및정리	0:01	0:01	0:01	0:05	0:04	0:06
집관리	0:00	0:00	0:00	0:01	0:01	0:01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0:03	0:02	0:03	0:13	0:11	0:14
가정경영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가사일	0:00	0:00	0:00	0:00	0:00	0:00
가족보살피기	0:44	0:12	1:14	0:42	0:28	0:54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26	0:07	0:42	0:26	0:18	0:34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0:13	0:03	0:23	0:09	0:05	0:13
배우자보살피기	0:03	0:01	0:05	0:02	0:01	0:03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0:01	0:01	0:02	0:03	0:04	0:03
그 외 가족보살피기	0:01	0:00	0:02	0:01	0:01	0:01

것은 가정관리시간, 특히 물품구입에서의 가족 공유시간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요일에 남성의 경우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의 모든 공유 대상에서 가족공유시간이 증가한데 반해 여성은 가정관리에서는 증가했지만 미취학 자녀보살피기 등 가족보살피기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일요일에 남성에 의한 자녀보살피기의 대체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3)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 실태를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으로 분석해 본 결과가 <표5>이다. <표5>에서 보면 평일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한 행위자의 비율이 50.5%이고 이들의 평균시간은 1시간 40분이다. 그 중 남성은 28.9%에 55분, 여성은 70.7%에 1시간 58분으로 나타나 여성의 가족과 공유하는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 모두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15.9%이고 평균시간은 42분,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율은 44.7%이고 평균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나타나 가족보살피기가 가정관리보다 행위자율도 높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길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의 행위자율이 10.2%, 행위자 평균시간은 41분이고 여성은 행위자율은 21.3%, 행위자 평균시간은 43분으로 남성의 행위자율이 여성의 1/2밖에 안

<표 5>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 비율 및 행위자 평균시간

(단위:%,시간:분)

	평일						일요일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가사노동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50.5	28.9	70.7	1:40	0:55	1:58	62.6	53.6	71.1	1:49	1:33	2:01
가정관리	15.9	10.2	21.3	0:42	0:41	0:43	41.2	35.9	46.3	1:05	1:01	1:08
음식준비및정리	7.7	4.3	10.8	0:33	0:28	0:35	16.9	11.8	21.8	0:44	0:37	0:47
의류관리	0.6	0.3	0.8	0:23	0:24	0:23	2.1	1.4	2.8	0:28	0:27	0:28
청소및정리	2.9	2.3	3.5	0:32	0:31	0:32	13.2	11.5	14.8	0:38	0:38	0:39
집관리	1.1	0.7	1.4	0:31	0:39	0:27	3.6	4.1	3.1	0:33	0:33	0:33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6.0	3.8	8.2	0:41	0:42	0:41	22.3	20.7	23.8	0:56	0:55	0:57
가정경영	0.9	0.8	0.9	0:31	0:33	0:29	0.4	0.4	0.4	0:23	0:23	0:23
기타가사일	0.1	0.0	0.1	0:26	0:21	0:27	0.3	0.2	0.3	0:24	0:18	0:27
가족보살피기	44.7	22.6	65.4	1:39	0:52	1:53	42.7	33.5	51.5	1:37	1:24	1:46
미취학아이보살피기	18.6	13.2	23.6	2:17	0:57	3:00	20.9	19.1	22.6	2:07	1:36	2:31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22.8	7.9	36.8	0:58	0:32	1:04	16.8	10.2	23.0	0:54	0:45	0:58
배우자보살피기	13.6	2.4	24.0	0:22	0:29	0:21	8.4	3.1	13.4	0:23	0:21	0:23
부모및조부모보살피기	1.4	1.1	1.8	126	1:14	1:34	3.3	3.3	3.4	1:39	1:59	1:21
그 외 가족보살피기	3.1	0.6	5.4	0:36	0:49	0:30	2.5	1.5	3.3	0:36	0:37	0:35

되지만 가족공유 가정관리를 할 경우 평균시간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가족공유 가정관리 평균시간의 차이는 행위자 평균시간 보다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성이 22.6%에 52분, 여성은 65.4%에 1시간 53분으로 나타나, 가족보살피기는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 있어 남녀 간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세부활동별로 보면 가정관리 중 그나마 가족공유행위자율이 높은 활동은 음식준비 및 정리와 물품구매영역으로 행위자율이 6~7% 정도이다. 반면 가족공유 가족보살피기의 행위자율은 초·중·고등학생들보기가 22.8%,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18.6%, 배우자보살피기가 13.6%로 가정관리 세부활동보다 행위자율이 높았다. 한편 세부활동별 행위자 평균시간은 가정관리는 20~40분 정도로 세부활동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가족보살피기는 미취학아이보살피기가 2시간 17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부모보살피기(1시간 26분),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58분) 순이며 배우자보살피기는 22분으로 세부활동별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세부활동별 행위자 평균시간을 보면 가정관리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가족보살피기는 세부활동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커서 미취학아이보살피기와 학동기자녀보살피기는 여성의 평균시간이 남성보다 2~3배 정도 긴데 반해 부모보살피기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이고, 배우자보살피기와 그 외 가족보살피기는 남성의 평균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자녀보살피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반해, 남성은 상대적으로 부모나 배우자, 그 외 가족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표6>에서 보면 가족전체의 가족공유 행위자 비율은 62.6%, 평균시간은 1시간 49분으로 행위자 비율은 평일보다 7.1% 높았고 평균시간은 9분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을 보면 남성은 53.6%로 평일보다 24.7%, 평균시간은 1시간 33분으로 평일보다 38분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71.1%로 평일보다 0.4%, 평균시간은 2시간 1분으로 3분 증가해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 있어 남성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졌다. 일요일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이 급증함으로 인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남녀 간 격차가 평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나누어 일요일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을 보면 가정관리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41.2%, 평균시간은 1시간 5분, 가족보살피기의 가족공유 행위자율은 42.7%, 평균시간은 1시간 37분으로 나타나, 가정관리는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에 있어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20분 이상 증가한 데 반해 가족보살피기는 평일보다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오히려 조금 감소하였다. 이를 볼 때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가정관리 영역의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정관리의 행위자율이 35.9%,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1분으로 평일에 비해 행위자율에서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20분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의 행위자율은 46.3%, 행위자 평균시간은 1시간 8분으로 평일에 비해 행위자 비율은 2배 증가하고 평균시간은 25분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에 있어 평일보다 일요일에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행위자 비율의 증

가가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일요일의 가족 보살피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은 남성이 33.5%에 1시간 24분, 여성은 51.5%에 1시간 46분으로 평일에 비해 남성은 행위자 비율이 10%정도 늘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32분 증가 한 데 반해, 여성은 행위자 비율이 10% 이상 줄고, 행위자 평균시간도 7분 감소하여 가족보살피기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격차가 일요일에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부활동별 요일간 변화를 보면 가정관리는 모든 세부활동에서 행위자율과 행위자 평균이 남여 모두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행위자 비율은 모든 세부활동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평일보다 일요일에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감소하였다.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도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보살피기, 부모보살피기에서는 남성의 시간은 증가하고 여성의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요일의 부모보살피기에서 남성 행위자의 평균시간이 2시간 정도로 여성보다 40분가량 길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행위자 비율이나 평균시간에 있어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족보살피기 에 있어 행위자 비율은 여성의 남성의 2.8배, 행위자 평균시간은 2.4배 높아 가정관리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간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가정관리영역에서는 행위자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는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의 차이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평일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관리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 남성의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이었

다. 가족보살피기에서 남성은 행위자 비율과 평균시간 모두 평일보다 일요일에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모두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보살피기가 일요일에 남성에 의해 다소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특성의 차이

여기서는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간 사회인구경제학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X^2 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일의 경우를 <표6>에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p<.001$).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연령이 가장 낮은 20대가 가사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50대가 가장 낮았다($p<.001$).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에 차이가 있어 대졸의 가사노동 가족공유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대학원졸, 중졸의 순으로 낮아졌다 ($p<.001$).

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여부의 차이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고,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으며, 주휴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집단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에 속할 비율이 높았다. 이는 대체로 전업주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이, 또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적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비율이 높았다. 개인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 가족공유 집단의 비율이 높았고 주휴제도에 있어서는 토요일 격주 휴무나 주5일제로 근무하는 집단의

〈표 6〉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평일)

단위: 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구분			전체	X^2 ,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1,529(30.3)	3,521(69.7)	5,050(100)	1838.752***
	여성	4,179(71.4)	1,673(28.6)	5,852(100)	
연령	20-29세	384(75.4)	125(24.6)	509(100)	1124.285***
	30-39세	2,355(72.4)	900(27.6)	3,255(100)	
	40-49세	2,104(47.5)	2,327(52.5)	4,431(100)	
	50-59세	865(32.0)	1,842(68.0)	2,707(100)	
교육수준	중졸	695(38.8)	1,094(61.2)	1,789(100)	174.709***
	고졸	2,876(54.3)	2,425(45.7)	5,301(100)	
	전문대 및 대졸	1,974(57.1)	1,485(42.9)	3,459(100)	
	대학원졸	163(46.2)	190(53.8)	353(100)	
경제활동 여부	함	3,438(42.9)	4,569(57.1)	8,007(100)	1072.630***
	하지 않음	2,270(78.4)	625(21.6)	2,895(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797(46.8)	906(53.2)	1,703(100)	1154.804***
	사무직	625(46.7)	714(53.3)	1,339(100)	
	서비스·판매직	953(47.2)	1,067(52.8)	2,020(100)	
	농림·기능원·장차·단순노무직	1,056(36.0)	1,874(64.0)	2,930(100)	
	해당 없음	2,277(78.2)	633(21.8)	2,910(100)	
노동시간	없음	2,270(78.5)	623(21.5)	2,893(100)	1262.238***
	하	1347(52.5)	1,220(47.5)	2,567(100)	
	중	1,298(42.6)	1,750(57.4)	3,048(100)	
	상	793(33.1)	1,601(66.9)	2,394(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207(79.6)	565(20.4)	2,772(100)	1367.954***
	100만원 미만	1,062(57.6)	782(42.4)	1,844(100)	
	100~200만원 미만	1,196(44.2)	1,511(55.8)	2,707(100)	
	200~300만원 미만	689(36.2)	1,214(63.8)	1,903(100)	
	300만원 이상	554(33.1)	1,122(66.9)	1,6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995(39.9)	1,500(60.1)	2,495(100)	1098.856***
	토요 격주, 주2일	1,492(46.0)	1,750(54.0)	3,242(100)	
	격주1일, 수시, 기타	951(41.9)	1,321(58.1)	2,272(100)	
	해당 없음	2,270(78.5)	623(21.5)	2,893(100)	
배우자유무	있음	5,481(52.9)	4,878(47.1)	10,359(100)	25.511***
	없음(사별, 이혼)	227(41.8)	316(58.2)	543(10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089(79.3)	546(20.7)	2,635(100)	1009.639***
	없음	3,619(43.8)	4,648(56.2)	8,267(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43(47.0)	2,752(53.0)	5,195(100)	113.081***
	비맞벌이	3,265(57.2)	2,442(42.8)	5,707(100)	
성역할 태도	연속번호	2.7(0.7)	2.5(0.0)	14.8(0.4)	-12.107***

* p<.05, *** p<.001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사노동의 가족공유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비맞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더 많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다($p<.001$). 또한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보다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졌다($p<.001$).

이상을 종합해 보면, 평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의 특성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여성이고, 연령이 젊고,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개인 월평균 소득이 적고, 주2일 휴무제로 일하고,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지 않는 집단은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중졸이 하이며, 경제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의 직업을 갖고 개인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미취학 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보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다음 <표7>과 같다.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 집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p<.001$), 연령은 20, 30대가 많아서 연령이 낮을수록($p<.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대졸인 집단이($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p<.001$),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인 경우($p<.001$), 그리고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고($p<.001$),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주휴제도와 상관없는 집단과 일주일에 2일을 쉬는 집단이($p<.001$) 가족공유 가사노동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짧고($p<.001$), 배우자가 있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고, 비맞벌이 가정이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서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가지는 집단의 특성을 보면 평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 50%이상이 가사노동을 가족이 함께하는 집단에 속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평일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평일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일요일에는 휴무이므로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비맞벌이 가정이거나 노동시간이 적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공유 가사노동 집단에 속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영유아기나 학동기자녀가 있는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 가족공유 집단에 속하는 것은 이들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에의 요구가 있음을 뜻한다. 또한 진보적인 성

(표 7)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일요일)

단위: 평균(표준편차), 빈도(%)

변수	구분			전체	X^2 , t
		공유	비공유		
성별	남성	891(51.4)	842(48.6)	1,733(100)	130.542***
	여성	1,380(69.7)	599(30.3)	1,979(100)	
연령	20-29세	169(87.6)	24(12.4)	193(100)	487.534***
	30-39세	924(81.4)	211(18.6)	1,135(100)	
	40-49세	831(57.3)	620(42.7)	1,451(100)	
	50-59세	347(37.2)	586(62.8)	933(100)	
교육수준	중졸	254(43.1)	335(56.9)	589(100)	156.591***
	고졸	1,080(59.0)	751(41.0)	1,831(100)	
	전문대 및 대졸	860(73.1)	316(26.9)	1,176(100)	
	대학원졸	77(66.4)	39(33.6)	116(100)	
경제활동 여부	함	1,571(56.8)	1,193(43.2)	2,764(100)	85.913***
	하지 않음	700(73.8)	248(26.2)	948(100)	
직업	관리자·전문가	384(64.9)	208(35.1)	592(100)	198.958***
	사무직	331(74.2)	115(25.8)	446(100)	
	서비스·판매직	356(49.1)	369(50.9)	725(100)	
	농림·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499(49.9)	502(50.1)	1,001(100)	
	해당 없음	701(73.9)	247(26.1)	948(100)	
노동시간	없음	700(73.9)	247(26.1)	947(100)	128.703***
	하	537(62.5)	322(37.5)	859(100)	
	중	632(59.2)	436(40.8)	1,068(100)	
	상	402(48.0)	436(52.0)	838(100)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679(75.4)	222(24.6)	901(100)	105.416***
	100만원 미만	354(56.5)	272(43.5)	626(100)	
	100~200만원 미만	516(54.2)	436(45.8)	952(100)	
	200~300만원 미만	390(59.4)	267(40.6)	657(100)	
	300만원 이상	332(57.6)	244(42.4)	576(100)	
주휴제도	일주일에 하루	490(57.7)	359(42.3)	849(100)	189.667***
	토요 격주, 주2일	741(65.9)	384(34.1)	1,125(100)	
	격주1일, 수시, 기타	340(43.0)	451(57.0)	791(100)	
	해당 없음	700(73.9)	247(26.1)	947(100)	
배우자유무	있음	2,204(62.1)	1,345(37.9)	3,549(100)	28.931***
	없음(사별, 이혼)	67(41.1)	96(58.9)	163(10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779(90.8)	79(9.2)	858(100)	412.030***
	없음	1,492(52.3)	1,362(47.7)	2,854(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50(57.4)	780(42.6)	1,830(100)	21.979***
	비맞벌이	1221(64.9)	661(35.1)	1882(100)	
성역할 태도	연속변수	2.6(0.7)	2.6(0.7)	2.6(0.7)	-3.115**

** p<.01, *** p<.001

역할 태도를 갖거나 짧은 연령층이거나 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공유 집단에 속하는 것은 이들이 가족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의식, 즉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는 자원, 요구, 가치관의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앞에서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관련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한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유무, 맞벌이여부, 성역할태도이다. 경제활동여부와 주휴제도는 노동시간과 월평균소득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므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평일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월평균 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인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며, 연령은 20대보다는 30대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데 반해 50대는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어려서 가족보살피기에 대한 요구가 많고 또 짧을수록 가사노동의 가족공유에 대해 쉽게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중졸이하가 가족공유를 하지 않으며 전문대 및 대졸은 가족공유를 더 많이 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

인 가치관을 갖게 되어 가족공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은 중간 정도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과 낮은 집단이 가족공유를 하는데 비해 ‘상’에 속하는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노동시간이 없거나 적을 경우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노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족공유를 하였고 200~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은 가족공유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개인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업무에 관한 요구가 높아 평일에는 가족공유를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였는데, 어린 자녀의 존재가 가족보살피기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맞벌이 가정이 비맞벌이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표7>, <표8> 집단간 차이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모형에 포함된 노동시간이나 개인 월평균 소득 등 직업과 관련된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맞벌이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맞벌이 가정이 비맞벌이에 비해 가족이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가 커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는 진보적일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관한 가치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의 결정요인

변인	구분	평일		일요일	
		B	S.E.	B	S.E.
상수항		-.218	.197	1.594 ***	.362
성별(기준:남성)	여성	1.537 ***	.064	.820 ***	.105
연령 (기준:20-29세)	30-39세	.368 **	.132	-.410	.249
	40-49세	-.066	.134	-.911 ***	.245
	50-59세	-.782 ***	.141	-1.642 ***	.253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354 ***	.070	-.075	.114
	전문대 및 대졸	.153 **	.058	.394 ***	.096
	대학원이상	.153	.141	.411	.232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1.088 ***	.106	.363 *	.177
	하	.258 ***	.065	.132	.107
	상	-.324 ***	.066	-.385 ***	.105
개인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311 **	.101	.261	.173
	100만원 미만	.189 *	.076	.163	.126
	200~300만원 미만	-.183 *	.075	.241 *	.122
	300만원 이상	-.184 *	.082	.362 **	.131
배우자 유무 (기준:없음)	있음	.107	.106	.380 *	.184
미취학자녀 유무 (기준:없음)	있음	1.628 ***	.075	1.662 ***	.144
맞벌이 여부 (기준:비맞벌이)	맞벌이	.241 ***	.061	.067	.100
성역할태도	연속변수	.150 ***	.036	.021	.059
N		10902		3712	
-2 log likelihood		10968.995		4048.001	
Chi-Square		4120.143***		909.959***	
Degree of freedom		18		18	

* p<.05, ** p<.01, *** p<.001

일요일을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 소득,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 존재여부가 가사노동 가족공유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여부와 성역할태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비교하면 일요일의 가족공유 여부에 배우자유무가 영향요인에 포함되고 맞벌이 여부와 성

역할태도는 영향요인에서 제외되는 차이를 보였다.

영향요인을 자세히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며, 2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전문대 및 대졸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였다. 노동시간은 중간인 집단에 비해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상'인 집단은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공유시간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인 집단에 비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족공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평일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평일 과중한 업무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위해 일요일에 더 많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요일에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일요일에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이 가족공유를 많이 한 것은 평일과 동일한 결과로서 가족살피기의 요구가 많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이 함께하는 공유시간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분석해보고자,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의 실태를 남녀간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절대적인 시간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역할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남녀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해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절대적인 시간면에서 월등히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가사노동

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독특한 것은 전체 가사노동시간 중 가족공유 가사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남녀간에 비교해 보면, 남성은 가사노동시간 중 1/2 정도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인데 반해, 여성은 1/4정도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이다. 그리고 세부활동영역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족과 함께하는 가사노동의 종류는 주로 가족보살피기와 물품구입 등 반여가적 성격이 강한 가사노동인 경우가 많았다. 즉, 여성은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책임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가족과 함께하는 반여가적인 성격의 가사노동에 주로 참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평일과 일요일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보다 다소 증가하는데, 이는 가족보살피기보다는 가정관리 시간이 증가한 것,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가족공유가사노동시간 또한 평일보다 일요일이 긴데, 이는 가정관리시간, 특히 물품구입에서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차이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그 특성이 달라, 일요일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영역에서는 증가하지만, 가족보살피기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반해, 남성은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가족공유시간이 늘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양 측면에서는 일요일에도 여전히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훨씬 길지만, 평일에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던 가족보살피기가 일요일에는 일정정도 남성에 의해 대체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셋째,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율과 행위자평균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율은 평일 50%정도, 일요일 60%정도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가족이 함께하

는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남녀차이가 있어 평일 여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율이 남성의 2배 이상 높은데 반해, 일요일에는 남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행위자비율이 여성에 비해 일요일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족보살피기영역에서 남성의 행위자 비율은 모두 평일 보다 일요일에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모두 감소함으로써 여성의 가족보살피기 역할이 일요일에 남성에 의해 다소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행위자평균을 살펴보면, 일단 가족공유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취학자녀보살피기와 초중고학생보살피기 등의 자녀보살피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사노동 영역에 있어서 남녀간 평균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이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훨씬 낮지만, 일단 참여할 경우에는 평균시간에 있어 여성과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활동 별로 볼때 대부분의 가정관리활동은 남녀간 행위자평균에 큰 차이가 없고, 가족보살피기활동의 경우, 미취학아이보살피기와 초중고학생보살피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일요일 부모보살피기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족보살피기 중에서 여성은 자녀를, 남성은 부모를 더 챙기는 식으로 남녀간에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분석해보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을 갖는 집단은 여성이고, 연령이 낮고, 전문대나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개인 월평균 소득이 없으며, 배우자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

별이를 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개인 월평균 소득이 적고, 주2일 휴무제로 일하고,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공유 가사노동 시간을 갖지 않는 집단은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중졸이하이며, 경제활동을 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의 직업을 갖고 개인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미취학 자녀도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개인월평균소득,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유무, 맞벌이여부, 성역할태도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여성이고, 연령은 30대, 교육수준은 대졸, 노동시간은 적을수록, 소득수준은 적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맞벌이인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요일의 경우, 평일과 다른 변수의 영향력은 유사하고, 맞벌이여부와 성역할태도 변수의 영향력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신 배우자유무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평일과 반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대한 소득수준의 영향력은 평일에는 부적으로, 일요일에는 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에는 임금의 소득효과가 일요일에는 임금의 대체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시간에 배분하려는 소득효과가 평일에 나타난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공유가

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려는 대체효과가 일요일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종합하여, 가치와 자원, 요구의 측면에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결정요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치요인의 측면에서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공유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요인의 측면에서, 월평균소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통해서 가족공유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요인이 되며, 노동시간은 사용가능한 시간의 일차적인 제약을 주는 시간자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구요인의 측면에서, 성별, 배우자유무, 미취학자녀유무, 맞벌이유무 등은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하도록 하는 요구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여성으면서 배우자와 미취학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경우 상황적으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전히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들이 수행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많다. 특히, 일요일에 가족보살피기나 물품구매 등 반여가적 성격의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행위자 평균시간에 있어서는 남녀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낮지만, 일단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성과 비슷한 정도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족공유 가사노동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한 가사노동 그 이상이라면, 가족공유가사노동은 여가적 의미도 가지고,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촉매 역할도 한다. 실태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반여가적 성격이 강한 가족공유가사노동에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가족공유도를 높여, 단순한 노동분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사노동의 가족공유도를 높이는 것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대부분 혼자서 수행해왔던 가사노동을 남편과 함께 또 자녀와 함께 하면서 가족간의 친밀감과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 길었고,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일요일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제약이 완화되어 시간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주 5일제 등으로 예전에 비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면서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 참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의 기업문화로 인해 평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요일 뿐 아니라 평일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시간근로관행을 균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캠페인이 일부의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적극 동참하여 우리사회 전반의 직장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시퇴근정책은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가족시간(family time)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가족이 서로 함께 생활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자원, 요구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중요시하며, 소득과 시간 조건이 자원으로 작용하여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하게 되며,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맞벌이의 상황은 요구로 작용하여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젊은 세대에게 가족공유 가사노동은 필수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젊은 세대에게 있어 가사노동은 남녀간 성별분업을 요구하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하는 더 나아가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영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남녀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가사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교육, 가족공유의 의미와 방법 등 가정생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맞벌이모델이 향후 보편화된다고 보면, 학교나 사회에서 직업적 성취만을 위한 직업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내 역할의 중요성과 의미, 실천방법 등을 교육하는 가정생활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양립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함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녀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실제 부부를 한 쌍으로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분석할 수 있다면 부부간 차이, 맞벌이부부-비맞벌이부부 비교 등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생활시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성별과 취업여부에 의해 규정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데 있어 초기부터 대상을 남녀와 취업여부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가족공유 가사노동에 초점을 둔 심층분석과 함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공유시간 분석, 청소년 및 노년 등 다양한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공유분석 등과 같이 가족공유와 관련된 추후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의 시간자원 배분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수정·임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2) 김정석(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 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3)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미니즘연구*, 5, 239-287.
- 4) 손문금(2010).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보고서*.
- 5)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6)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이승미·이기영(199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8)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9) 통계청(2010).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

도자료

- 10) Barnet-Verzat C., Pailhé A. & Solaz A.(2005).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working paper.
- 11) Bittman, M.(1999). Parenthood without penalty: Time use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and Finland. *Feminist Economics* 5, 27-42.
- 12) Bradbury, B.(2004). Using Time Use Data to Estimate the Full Costs of Children.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13) Bryant, W. K. & Wang, Y.(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14) Br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
- 15) Bryant, W. K. & Cathleen, D. Z.(1996). Are we investing less in the next generation? Historical trends in time spent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 365-392.
- 16) Chalasani, S.(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93-117.
- 17) Davey, A. J. & Paolucci, B.(1980). Family interaction: A study of shared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29(1), 43-49.
- 18) Fedick, C. B., Pacholok, S. & Gauthier, A. H.(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Parental time - Analysis of measure in a Canadian time- us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67-87.
- 19) Gatenby, R.(2004).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27.
- 20) Jens Bonke, James McIntosh(2005). Household time allocation-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from Denmark.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Research Institute on Professions (Forschungsinstitut Freie Berufe (FFB))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IATUR)*, vol. 2(1), 1-12.
- 21) Larson, R. W., Gillman, S. A. & Richards, M. H.(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8-97.
- 22) Paul, W. K. & Steven, L. N.(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 23) Sayer, L.(2010). Gender equality and time together for U.S. partnered parents. 32th Time Use Conference.
- 24)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투고일 : 2011년 4월 1일

■ 심사일 : 2011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25일